

## 한라반 학습 계획

일시 : 2018년 12월 15일

교사 : 김은아

- 목표 :
1. 분석의 방법으로 내용을 전개하여 쓴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2. 문법문제 형성평가를 풀 수 있다.
  3. 조선에 관련된 읽기 자료를 읽고 이해할 수 있다.
  4. 8급 한자의 뜻을 알고 읽을 수 있다,
  5. 관용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교재 : 국어6-2 나, 초등한자1, 살아있는 한국어 관용어, 100대 민족문화상징자료, TOPIK중급

교시	수업내용
1교시 9:30-10:20	숙제 확인 및 쪽지시험(한자,관용어, 읽기자료)
2교시 10:20-11:20	분석의 방법으로 내용을 전개하여 쓴 글을 읽고 이해하기
점심 11:20-11:40	
3교시 11:40-12:00	문법 수업(형성평가)
4교시 12:00-12:40	역사 수업(조선의 건국과 발전2)

숙제 (다음 주에 쪽지시험 봅니다)

1. 읽기 자료(조선 관련)
2. 어휘
3. 우리말 평가 시험 준비

12/22, 12/29 수업 없습니다.

1/5 우리말 평가

<분석하며 글 읽기> 공부할 어휘

1. 타당성 : 사물의 이치에 맞는 옳은 성질.
2. 명료성 : 뚜렷하고 분명한 성질.
3. 원산지 : 1. 물건의 생산지. 2. 동식물이 맨 처음 자라난 곳.
4. 변식력 : 변식하는 힘.
5. 유입 : 문화, 지식, 사상 따위가 들어옴.
6. 의식주 : 옷과 음식과 집을 통틀어 이르는 말. 인간 생활의 세 가지 기본 요소이다.

## <훈구파와 사림파의 새로운 힘겨루기>

### 1. 무오사화와 갑자사화

“아니, 김일손 이놈이 기어이 사실대로 썼구나!”

실록청에 몰래 숨어들어 사초를 읽던 이극돈이 어금니를 깨물며 화를 참았어요.

세조의 비인 정희 왕후가 세상을 떠났을 때 전라 감사로 있던 이극돈은 조문을 하러 올라가지도 않고 기생과 놀았어요. 김일손은 그 사실을 신하의 바르지 않은 행동이라며 역사에 기록하려 했어요. 그러자 이극돈은 김일손을 찾아가 그 내용을 빼 달라고 부탁했지요. 하지만 김일손은 이극돈의 부탁을 거절했던 거예요.



이극돈은 자신의 허물을 들추는 이야기가 더 있는지 살폈어요. 그러다 김일손이 '조의제문'을 칭찬하는 내용이 있는 것을 보았지요. 조의제문은 김일손의 스승인 김종직이 쓴 글로, 단종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세조를 은근히 비꼬는 뜻이 담겨 있었어요. 이극돈은 유자광에게 이 일을 알렸어요.

“이번 기회에 젊은 학자들을 조정에서 몰아 냅시다.”

유자광은 당장 조정의 원로 대신들인 윤필상, 노사신, 한치형 등을 찾아갔어요. 훈구파를 이끌고 있던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날 밤, 대궐에 들어갔어요.

“전하, 김일손 등 사림의 젊은 학자들이 세조 대왕을 깎아 내리고 있사옵니다.”

“뭐라고? 당장 그놈들을 잡아들여라!”

연산군은 당장 김일손을 잡아들여 고문을 했어요.





“네가 반역을 꾀한 신하들을 엄벌로 다스린 세조 대왕을 비난한 김종직의 글을 실록에 남기려 했느냐?”

“그렇사옵니다.”

“어째서 그리하였느냐?”

“사실을 그대로 쓰는 것이 저의 일이기 때문이옵니다.”

김일손이 당당하게 말했어요.

연산군은 그런 김일손에게 더욱 화가 났어요. 훈구파와 마찬가지로 연산군도 사사건건 간섭하는 사림파를 미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연산군은 이미 죽은 김종직을 무덤에서 꺼내 목을 베게 하고, 김일손을 비롯한 사림파 수십 명을 죽이거나 귀양을 보냈어요. 이 일을 무오사화라고 해요.

사림파는 무오사화에 이어 6년 뒤에 또 다시 큰 화를 입게 되지요. 그 사건은 연산군이 자신의 친어머니인 윤씨를 쫓아 내는 데 찬성한 신하들을 모조리 죽인 갑자사화였어요.

#### 〈훈구파와 사림파의 대립〉

세조는 조카인 단종을 내쫓고 왕이 되었어요. 이 때 많은 신하들이 세조를 도왔어요. 세조는 왕위에 오르자 자신을 도와 준 이들을 공신으로 명하고, 많은 땅과 노비를 주었어요. 이 공신들을 훈구파라고 하지요. 훈구파들은 큰 힘과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많은 욕심을 부렸어요. 그러자 훈구파의 잘못을 나무라는 세력이 생겨났어요. 사림파로 불리는 그들은 주로 사헌부나 사간원 등에서 일하던 학자들이었어요. 본래 사헌부, 사간원은 왕이나 신하가 한 일의 잘잘못을 따져 보는 곳이었지요. 사림파와 훈구파는 성종을 거쳐 연산군에 이르러서는 얼굴만 마주쳐도 으르렁거릴 정도로 사이가 나빠졌어요.





## 2. 기묘사화와 을사사화

증종은 훈구파의 도움으로 왕위에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 증종은 훈구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지요.

“어진 왕이 되려면 신하들에게 끌려 다녀서는 안 돼.”

좋은 왕이 되고자 했던 증종은 훈구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고 했어요. 조광조는 그런 증종에게 큰 힘이 되어 주는 사람이었어요. 사림파를 이끌고 있던 조광조는 훈구파의 바르지 못한 행동을 나무라며 정치를 새롭게 하려 했어요. 조광조는 자신이 옳다고 여기면 훈구파는 물론 왕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말했지요.

갈수록 힘이 약해지던 홍경주, 심정, 남곤 등의 훈구파들은 조광조의 강인한 성품을 이용해 일을 꾸몄어요. 먼저 훈구파들은 ‘조광조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헛소문을 퍼트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홍경주의 딸인 후궁 흥 희빈이 증종에게 나뭇잎 한 장을 내밀었어요.

“이것은 벌레 먹은 나뭇잎이 아니오?”



“그렇습니다. 제가 궁궐의 뒤뜰에서 주워 왔지요. 그런데 나뭇잎에 글자가 쓰인 듯하옵니다.”  
“허허, 정말 주초위왕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구려.”

중종은 나뭇잎을 그저 신기하게만 보았어요.

“주(走)와 초(肖)를 합하면 조(趙) 자가 됩니다. 즉 조광조가 왕이 된다는 말이지요.”  
“무엇이? 조광조가 왕이 된다고!”

홍 희빈의 설명을 듣고 나서 중종은 불같이 화를 냈어요. 그렇지 않아도 조광조가 왕위를 노린다는 소문을 이미 들었던 중종의 마음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홍경주는 백성들이 왕보다 조광조를 더 존경한다며 분명히 역모를 꾸밀 것이라고 했어요. 결국 중종은 훈구파의 음모에 속아 조광조에게 사약을 내렸어요. 또 그를 따르던 많은 사림파들을 죽이거나 귀양을 보냈지요.

사실은 훈구파가 조광조를 몰아 내기 위해 나뭇잎에 ‘주초위왕’이라는 글씨를 쓰고 꿀을 바른 뒤 벌레들이 먹게 하여 글씨가 새겨진 것처럼 만든 것이었어요. 하지만 중종은 죽을 때까지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지요. 이렇게 훈구파의 음모로 사림파가 또 한 번 화를 입게 되었는데, 이 사건을 1519년 기묘년에 일어났다고 해서 기묘사화라고 해요.

중종에 이어 인종이 왕이 되었지만 9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이어 열두 살의 명종이 왕이 되었어요. 나라를 돌보기에는 명종의 나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어머니인 문정 왕후가 대신 나라를 다스렸어요. 문정 왕후는 이 때 자신의 힘을 키우기 위해 동생인 윤원형과 손을 잡고 인종의 외삼촌인 윤임을 몰아 냈어요. 이 과정에서 문정 왕후는 자신에게 비판적인 사림파들을 죽이지요. 이 사건을 을사사화라고 해요.

을사사화 이후에 사림파들은 지방으로 내려가 서원을 세우고 학문을 닦는 데 열중하며 세력을 키워 갔어요. 이 때에는 훈구파가 사림파를 눌렀지만 16세기 이후에는 사림이 권력을 잡게 되지요.

### 3. 내용 정리

세조가 왕위에 오르는 데 공을 세우고 권력을 잡은 훈구파는 많은 땅과 노비를 거느리고 부를 쌓았습니다. 사림은 이를 비판하며 훈구파와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연산군 때에는 세조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훈구파에게 사림파가 화를 당하는 무오사화가 일어났습니다.









연산군을 몰아 낸 훈구파의 도움으로 왕이 된 중종은 조광조를 아꼈습니다. 그러자 훈구파가 헛소문을 퍼뜨려 조광조를 모함했습니다. 중종은 소문을 믿고 조광조와 사림들을 죽이게 했는데, 이 사건이 기묘

사화입니다. 한편, 명종이 왕위에 오른 해에는 명종의 외삼촌인 윤원형이 문정 왕후와 함께 윤임의 일파를 몰아내는 과정에서 사림이 화를 입은 을사사화가 일어났습니다.







2018년 12월 08일

## 한라반 쪽지시험

이름 :

▶ 아래 문장의 한자를 읽어 보세요.

1. 東山( 산) : 동쪽에 있는 산
2. 東海( 해) : 우리나라 동쪽의 바다
3. 西方( 방) : 서쪽 지방, 서유럽의 자유주의 국가
4. 東西( ) : 동쪽과 서쪽
5. 南國( 국) : 남쪽에 있는 나라
6. 南韓( 한) : 남북으로 갈라진 한국의 남쪽 땅
7. 北上( 상) : 북쪽을 향하여 올라감
8. 南北( ) : 남쪽과 북쪽을 아울러 이르는 말

▶ 다음 질문에 답하세요.

1. 세종대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지만 몸이 약해 두 해만에 열 두살난 세자를 두고 죽은 왕은?
2. (1번의 답) 이 왕이 죽은 후에 왕이 된 사람은?
3. 나이 어린 임금인 임금이 정치를 잘 못하자 정승들이 나라를 마음대로 주무르는 것에 불만을 가진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사람은 세종의 둘째아들이자 어린 임금의 작은 아버지였습니다.
4. 명나라에서 돌아온 수양대군은 제일 먼저 이 사람을 죽이고 황보인과 자신의 동생인 안평대군이 역모를 꾀했다 하여 죽였습니다.
5. 이 사건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6. 계유정난 후 권력을 잡았던 수양대군은 2년 뒤 단종을 밀어내고 왕위에 올랐는데 그가 바로 ( )이다. 힌트 : 왕이름
7. 계유정난 후 성삼문과 몇몇 신하들은 ( )을 왕으로 다시 세우기 위해서 세조를 없애기로 마음 먹었다.
8. 연회에서 세조를 없앨 계획을 세웠으나 김질의 배신으로 실패하여 죽임을 당한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개, 유성원, 유응부 등 여섯 신하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9. 한편 죽지는 않았지만 세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벼슬을 버리고 숨어 사는 이맹전, 남효온, 김시습, 조여, 원호, 성담수 등의 선비들도 있었는데 이들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 문장을 읽고 아래의 단어들을 이용해 문장을 만드세요.

분석, 구성, 가정, 경사, 완만하다, 저격

1. 민둥산을 가로질러 다음 골짜기에 이르자 기울기가 비교적 ( ) 평지가 나왔다.
2. 그는 한 괴한의 ( )을 받아 사망하였다.
3. 그의 의식 속에는 만약이라는 ( )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
4. 그 산은 ( )가 급해서 오르기가 힘들다.
5. 상대 팀을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에 대한 세밀한 ( )이 필요하다.
6. 깨끗하게 씻어 놓은 파란 고무신, 흙이 약간 묻은 탄탄히 삼은 짚신, 나는 나의 생활을 ( )하는 모든 작고 아름다운 것들을 사랑한다.



## 연습해요



보기의 관용어를 넣어서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보기

내 코가 석자    코앞에 닥치다    어깨가 무겁다    어깨를 펴다

- 1 가: 영수 씨가 드디어 아빠가 되었대요.  
나: 이제 영수 씨도 \_\_\_\_\_.
- 2 가: 시험이 \_\_\_\_\_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줄게요.
- 3 가: 과제 다 끝냈어요? 너무 어려워서 못 하겠어요. 좀 도와주세요.  
나: 어떡하지요? \_\_\_\_\_. 나도 아직 못 끝냈어요.
- 4 가: 학교 대표로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나간다면서요?  
나: 네, 모두가 기대하고 있어서 \_\_\_\_\_.
- 5 가: 나도 그 일을 도와주고 싶지만 \_\_\_\_\_.  
나: 괜찮아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 볼게요.
- 6 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나: \_\_\_\_\_ 씩씩하게 하세요.



여러분이 대화문을 만들어 보세요.

가: \_\_\_\_\_

나: \_\_\_\_\_





### 3회 - 형성평가



1~5 다음 ( )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 ( ) 들은 음악이 그 가수의 신곡이에요.  
 ① 제법                      ② 아까                      ③ 점차                      ④ 서서히
- 목이 빠지게 기다렸지만 그는 ( ) 오지 않았다.  
 ① 끝내                      ② 겨우                      ③ 자세히                      ④ 도저히
- 자신의 개성을 옷차림으로 ( )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① 버리는                      ② 정하는                      ③ 고르는                      ④ 표현하는
- 1990년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니 나의 초등학교 시절이 ( ).  
 ① 채웠다                      ② 흘렀다                      ③ 보냈다                      ④ 떠올랐다
-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걸을 수 없는 그가 너무 ( ) 뿐이었다.  
 ① 평범할                      ② 신기할                      ③ 충분할                      ④ 안타까울

6~9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비슷한 것을 고르십시오.

-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 얼굴빛이 달라졌다.  
 ① 묶었다                      ② 담았다                      ③ 변했다                      ④ 바꿨다
- 오늘 그는 분명히 오지 않을 겁니다.  
 ① 겨우                      ② 내내                      ③ 좀처럼                      ④ 확실히
- 일주일 동안 밥을 안 먹고 견딜 수 있겠어요?  
 ① 버틸                      ② 멈출                      ③ 쏟을                      ④ 꺼낼
-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서 스트레스를 풀었어요.  
 ① 받았어요                      ② 들었어요                      ③ 알았어요                      ④ 해소했어요

10~11 다음 ( )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동사를 고르십시오.

10. 그 여자는 남자처럼 얼굴에 수염이 ( ) 매일 면도를 한다.  
이번 시험에 ( ) 문제는 모두 내가 아는 문제였다.  
노래를 부르는데 자꾸 기침이 ( ) 끝까지 부르지 못했다.

① 보다                      ② 나다                      ③ 멈추다                      ④ 생기다

11. 약사는 의사가 발급한 처방전을 보고 약을 ( ).  
나는 아직까지 밥을 ( )본 적이 없다.  
나의 꿈은 큰 집을 ( )온 가족이 모여서 사는 것이다.

① 짓다                      ② 사다                      ③ 하다                      ④ 만들다

12~13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반대인 것을 고르십시오.

12. 현금은 은행에 맡겨 놓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① 담아                      ② 찾아                      ③ 묶어                      ④ 섞어

13. 그 사람은 몸에 해로운 음식을 절대로 먹지 않아요.

① 부러운                      ② 두꺼운                      ③ 이로운                      ④ 새로운

14~18 다음 ( )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4. 가: 김 과장님이 사무실에 ( ) 전화해 보세요.  
나: 아날걸요. 출발한 지 20분밖에 안 됐으니까 1시간 후쯤 도착하실 거예요.

① 도착하시면                      ② 도착하셨을 텐데  
③ 도착한 줄 아니까                      ④ 도착하실까 하는데

15. 가: 언제 운동하는 것이 다이어트에 효과적이에요?  
나: 언제 ( ) 상관없지만, 저녁 식사 후에 하면 더 좋아요.

① 하기에                      ② 하니까  
③ 하더니                      ④ 하든지



16.

가: 혹시 민수 봤니? 같이 도서관에 가기로 했는데 아직 안 와서.

나: 아까 식당에서 밥을 (                    ).

- ① 먹던데                      ② 먹어야지  
③ 먹으려고                  ④ 먹고말고

17.

가: 어떤 차가 좋을까요?

나: 수미 씨가 (                    ) 이 차가 좋을 것 같아요. 연비가 높잖아요.

- ① 타거나                      ② 타려고  
③ 탈 뿐인                  ④ 타기에는

18.

가: 김 대리님 휴가 안 가세요?

나: 보고서를 아직 못 내서 휴가를( ).

- ① 미루기는 해요                      ② 미루고야 말겠어요  
③ 미룰 수밖에 없어요                ④ 미룰 것까지는 없어요

19~23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이 틀린 것을 고르십시오.

19. ① 할아버지께 여쭙 말씀이 있다.

- ② 선생님을 택까지 차로 모셔다 드렸다.  
③ 형이 나를 좀 도와 드리겠다고 말했다.  
④ 선생님께서 나를 사무실로 오라고 했다.

20. ① 살이 빠져서 셔츠가 헐렁해졌다.

- ② 20년 간 일해 온 회사를 떠나게 되었다.
- ③ 아까 보니 시험 일정이 게시판에 붙고 있다.
- ④ 늦잠을 자는 바람에 중요한 회의에 늦고 말았다.

21. ① 맛있는 음식이 있길래 이것저것 많이 먹었어요.

- ② 지난번 시험은 쉬웠더니 이번 시험은 어려워요.  
③ 누구나 친절한 사람을 좋아하듯이 저도 그래요.  
④ 잠을 안 자더라도 내일까지는 숙제를 끝내야 해요.

22. ① 동생이 먹고 싶다가에 찌개를 끓였다.

② 여행가는 동안에 강아지를 이웃에 맡겼다.

③ 사장님이 자리에 안 계셔서 책상 위에 메모를 남겼다.

④ 새로 출시된 차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숨겼다.

23. ① 저 병원은 제가 태어나던 곳입니다.

② 이 차는 중고차치고는 성능이 좋습니다.

③ 매일 두 시간씩 했으니까 열심히 한 셈입니다.

④ 그분이야말로 한국을 대표할 만한 화가입니다.

24~26 다음 중 밑줄 친 부분과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을 고르십시오.

24. 가: 사무실에 사람이 있어요?

나: 불이 꺼진 걸 보니까 다 돌아간 모양이에요.

① 돌아가려고요

② 돌아갔나 봐요

③ 돌아가려고 해요

④ 돌아갈 줄 몰랐어요

25. 가: 주말에 나랑 같이 봉사 활동하러 안 갈래요?

나: 남자친구가 휴가 나올지도 몰라서 못 가겠어요.

① 나와야

② 나오거든

③ 나올까 봐

④ 나오는 대로

26. 가: 이번 사건의 범인이 잡혔다면서요?

나: 그러게요, 나쁜 짓을 하면 언젠가는 잡히기 마련이지요.

① 잡힐 뿐이에요

② 잡히는 법이지요

③ 잡히는 편이에요

④ 잡히려던 참이에요



가: 내일 어디로 출장 가세요?

나: 경주로 출장을 가는데 ( ㉠ ) 곳이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가: 글쎄요, 저는 불국사가 좋던데요. 한국의 아름다운 건축 문화를 엿볼 수 있으니까요.

나: 불국사요? 거기는 ( ㉡ )가 봤는데 다른 곳은 없어요?

27. ㉠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 |        |        |
|--------|--------|
| ① 보든지  | ② 보면서  |
| ③ 볼 만한 | ④ 볼 뿐인 |

28. ㉡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 |      |      |      |       |
|------|------|------|-------|
| ① 금방 | ② 이미 | ③ 아직 | ④ 이따가 |
|------|------|------|-------|

물은 공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필수 조건이므로 사람은 물 없이는 3일도 버티기 ( ㉠ ). 우리 몸은 70% 정도가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몸의 성장과 노화에 따라 달라진다. 신생아일 때는 80%, 성인이 되면 70% 정도, 그리고 노년기가 되면 50% 정도를 차지한다.

만약 물의 섭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신진대사율이 떨어지고 세포의 면역력이 약해져서 병원균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진다. 또한 체온 조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고온에 시달릴 수도 있다. 결국 '물을 마신다'라는 말은 '생명 활동을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아무 물이나 무조건 많이 마시라는 것은 아니다. ( ㉡ ) 말이 있듯이 미네랄이 풍부하고 깨끗한 물을 마셔야 한다. 미네랄은 신진대사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기초 영양소가 체내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29. ㉠에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 |             |            |
|-------------|------------|
| ① 어려운 척한다   | ② 어려울 참이다  |
| ③ 어려울 리가 없다 | ④ 어렵기 마련이다 |

30. ㉡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 |                 |                 |
|-----------------|-----------------|
| ① 갈수록 태산이라는     | ② 우물 안 개구리라는    |
| ③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 ④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

2018년 12월 15일

## 한라반 쪽지시험

이름 :

▶ 아래 문장의 한자를 읽어 보세요.

1. 女子( 자) :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
2. 父女(부 ) : 아버지와 딸
3. 王子( 자) : 임금의 아들
4. 國王( ) : 나라의 임금
5. 空軍(공 ) : 항공기를 이용하여 공격, 방어하는 군대
6. 國軍(국 ) :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군대
7. 人物( 물) : 생김새나 됨됨이로 본 사람
8. 老人(노 ) :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

▶ 다음 질문에 답하세요. 태정태세문단세예성연중인명선

1. 성종의 부인은 이 사람은 모함을 받고 궁궐에서 쫓겨난 지 3년만에 사약을 받고 죽었어요.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2. (1번의 답)이 사람의 아들이자 성종의 아들이 다음 왕이 되었어요. 이 왕은 누구입니까?
3. (2번의 답)이 왕은 외할머니로부터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듣고 성종의 후궁인 정귀인과 엄소용 그 아들들인 안양군과 봉안군을 죽이고 윤씨에게 사약을 내리는 일에 관여했던 수십명의 대신들을 죽이거나 귀양 보냈어요. 이 일을 ( )라고 해요.
4. 박원종과 성희안은 연산군의 횡포에 맞서려는 계획을 세우고 임금이 된지 12년만에 몰아내고 이복동생인 진성대군을 왕의 자리에 앉혔어요. 이 일을 ( )이라고 해요.

### <조선의 건국과 발전 복습문제>

5. ( )으로 정권을 잡은 ( )세력과 ( )는 토지개혁을 실시하고 조선을 건국하게 되었어요.



6. 위화도 회군으로 정치력을 장악한 신진 사대부들은 권문세족의 경제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 )을 실시했다.
7. 조선의 1대 임금은?
8. 급진파 신진 사대부의 대표적 인물, 이성계와 손잡고 조선이라는 새 왕조를 여는데 큰 역할을 한 이 사람은?
9. 조선의 새 수도는?
10. 태조의 아들인 이 사람은 1차, 2차 왕자의 난을 통해 제3대 임금이 되었다.
11. 이것은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16세 이상의 남자만 지니게 했던 나무조각이다.
12. 태종을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직접 해결해 주기 위해 ( )을 설치했다.
13. 조선의 4대 임금이고 좋은 정치를 펼치기 위해 노력해 조선 최고의 임금으로 손꼽히는 이 사람은?
14. '현명한 사람들을 모아놓은 부서'라는 뜻의 이 곳에서 세종은 학문을 연구하고 학자를 길러내었다.
15. 수양대군이 단종을 몰아내고 왕이 된 이 사건은?